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3호

Jeff Pippenger

2026-01-04

숫자 스물셋

제22편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그런 다음 11장에서는 셈에서 아브람까지 열 사람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의 족보가 드러나 있다.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택하신 백성의 족보이기도 하다. 11장은 하나님과 삼중 언약을 맺게 될 택하신 백성을 소개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22장의 이삭의 번제였다. '11장'은 알파의 시작이고 '22장'은 오메가의 끝이다. 이름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매겨진 숫자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한 믿음과 다르지 않다."

제11장은 가인의 언약과 아벨의 언약을 다룬다.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바벨탑의 예언적 특징이 거짓 언약을 나타낸다는 것을 거듭 보여 주었다. 홍수를 전후하여 경륜에 변화가 있었는데, 홍수 이전에는 에덴동산의 문에서 예배했고 홍수 이후에는 제단에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제단에는 성경이 정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돌을 다듬거나 새기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아야 했고, 회반죽 없이 돌 위에 돌을 올려야 했다.

탑의 목적은 니므롯의 추종자들에게 이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름은 품성을 뜻한다. 그 탑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고, 하늘의 신들처럼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을 본다. 그 탑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는 시편 83편의 열 왕들이 성경 예언의 사악한 동맹, 곧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의 수장을 들어 높이는 것과 같다.

아삽의 노래 또는 시편.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침묵하지 마시며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시편 83:1, 2.

세상은 막 노아의 홍수로 멸망했으며,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 세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고 밝히신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하나 됨을 여러 방식으로 말하는데, 그중 하나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는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으며, 오직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고린도전서 1:10.

하나님께서 니므롯의 왕국에 대한 심판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이는 혼잡 이전에 그들이 모두 하나였고, 따라서 모두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 성격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종교였으며, 이는 같은 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들과는

대조적이었다. 셈은 니므롯 시대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역사가들은 주 앞에서 강한 반역자였던 니므롯을 죽인 이가 셈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견해가 없어도 요점은 변함없다. 셈은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의 혈통은 언약의 사람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노아의 혈통은 또 다른 언약의 사람 셋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셋은 그의 형제 아벨을 대신하여 언약의 역사에 들어온 또 다른 언약의 사람이고, 아벨은 아담의 직계 후손인 또 다른 언약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11장은 생명의 언약과 사명의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이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큰 사냥꾼'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가 많은 신도를 거느린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셈을 통해 신도가 적은 교회를 대표한다. 니므롯이 그의 탑을 쌓고 있을 때 언약의 사람은 셈이었지만, 11장의 두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셈과 니므롯이 아니라 니므롯과 아브라함이다. 바울은 이 예언적 원칙을 분명히 밝힌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고, 아브라함도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주었느니라.

그리고 진실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의 자손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들, 곧 자기 형제들에게서 십일조를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 형제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자가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고, 약속을 받은 자를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의 여지 없이 작은 자가 큰 자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지만, 거기서는 살아 있다고 증언된 그가 그것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자면,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그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1-10.

멜기세덱이라는 주제에는 현재의 진리가 매우 많이 담겨 있지만, 나는 단지 바울이 직접 가르친 바를 지적하려 한다. 곧 언약의 사람들의 예언적 특성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언약의 사람들'이란 영감된 증언 속에서 그들의 성경적 증언이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예언적 계보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지시하는 남녀를 뜻한다. 바울은 시내산에서 레위 제사장직이 제정되기 이전, 곧 레위 제사장직이 존재하기 400여 년 전을 살았던 멜기세덱이 레위에게서 십일조를 받았다고 가르친다. 레위 제사장직에 속하려면 레위의 혈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레위인이어야 했다. 그러나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멜기세덱은 자신의 혈통이 레위의 계열에서 나왔음을 보여줄 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예언의 줄기는 사실 두 가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시험이 수반된 생명의 언약이었다. 타락과 그 시험의 실패 이후, 다음 언약은 옷을 입히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포함했다. 이어 무지개와 노아,

그리고 제단에서 드린 제사로 나타난 인류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라 불리게 될 택하신 백성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창세기 11장이 있다. 그 모든 이야기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언약의 사람들이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선택된 백성과 맺는 생명의 언약의 시작이 제시되며, 그 제시는 니므롯이 벽돌과 회반죽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언약을 세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 벽돌과 회반죽은 제단이 나타내는 깎지 않은 돌과 회반죽을 쓰지 않음의 모조품이었다. 화이트 자매는 제단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며, 그러므로 가짜 종교인 니므롯의 종교는 가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회반죽으로는 역청을 사용하였다. 창세기 11:3.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네가 그것에 연장을 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느니라. 출애굽기 20:25.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뒤섞는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불이 우리의 노력에 사용되어야 한다. 참된 제단은 그리스도요, 참된 불은 성령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감이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실 때에만 그는 믿을 만한 조연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돌이켜 이방 제단에서 묻는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3권, 300쪽.

여타 진리들 가운데, 창세기 11장에서 예언적으로 도출되는 교훈 중 하나는 그것이 예언적 계통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는 예언적 분기점을 이룬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예배 방식이 있게 되었고, 그 예배 방식은 가인과 아벨의 역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언제나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는다. 창세기 11장은 새로운 세계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언약의 백성이 일요일 법 위기 동안 바빌론에서 열한시 일꾼들을 불러낼 때 나타날 마지막 역사의 토대가 되는 시초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니므롯은 일요일 법 위기 동안 죄의 사람이고, 셈, 곧 아브라함은 바로 그 동일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창세기 11장의 흠어짐과 언어의 혼잡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다. 11장의 주제는 두 언약이며, 그 이야기는 2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세 번째 단계가 제시될 때 결말에 이른다.

제11장은 제22장에서 오메가 역사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계통에 관한 알파 역사이다. 니므롯의 바벨로 시작하는 이야기와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로 끝나는 대목은 모두 인류에 대한 최종 심판을 나타낸다. 그 계통은 니므롯의 탑에서 시작하여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어지며,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제사로 절정을 이룬다. 니므롯의 제사는 하나님의 집행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의 심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니므롯은 제11장의 알파이고 아브라함은 제22장의 오메가이다. 오메가는 언제나 더 크데, 히브리 알파벳에 따르면 적어도 스물두 배는 더 크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민족들을 흠으신 데 나타난 권능도 십자가의 권능에는 훨씬 못 미쳤다. 니므롯의 탑은 9/11의 쌍둥이 빌딩을, 이삭을 바치는 일은 주일법을 상징한다.

선민과의 언약의 선은 숫자 11의 상징으로 시작하여 숫자 22의 상징으로 끝난다. 그 선은 니므롯의 알파 역사와 아브라함의 오메가 역사에서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마무리된다. 니므롯과 아브라함의 바로 그 역사는 성경의 첫 책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일어난 노아의 홍수가 남긴 파괴의 여파를 수습해 가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성경의 첫 책에서 두 언약의 예증은 1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은혜의 기간의 종결을 증언하는 두 증인을 제시한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

니므롯은 여전히 불의하고 더럽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다. 이는 창세기 11~22장의 알파에서 확인되며, 요한계시록 22:11의 오메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10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는 선언이 주어진다. 바로 다음 절에서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봉인이 풀려야 할 예언이 언급된다. 11절로부터 두 절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의 봉인을 푸는 열쇠를 주신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10-13.

제22장은 성경 전체의 오메가 장이며, 봉해진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여는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 먼저 밝히신 원리이다. 제1장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에 해당하고, 제22장은 마지막 글자에 해당한다. 1장 9절부터 11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밝힌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1:9-11.

11절에서 요한은 밧모 섬에 있지만, 12절에서 그는 뒤돌아보고, 그때부터는 하늘 성소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9-11절에서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밝히는 요한의 증언을 보게 되는데, 이는 8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 대해 밝히신 바와 같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1:8.

8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에 관해 하신 말씀을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요한이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는 처음 11절에서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지목하는 두 증인을 이룬다. 9절부터 11절은 하나의 독립된 의미 단락을 이룬다. 이 구절들은 장 전체와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요한이 자신에 관해 말한다. 반면 4절부터 8절에서는 요한이 신격을 대표하여 그의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다. 4절은 8절에서 끝나는 하나의 의미 단락을 시작한다. 이는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서두 묘사가 4절과 8절에서 각각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그리고 충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께 드릴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아멘.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그러합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4-8.

1장의 처음 세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시하며, 그 계시는 은혜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인봉이 풀린다. 이는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은 22장 10절의 진술과 동일한데, 거기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고 되어 있다. 인봉이 풀리는 그 예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4절에서 봉함이 풀리기 시작하며, 4절은 "나 요한"이라는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밝히신다. 다섯 절의 첫머리에는 인간 증인이, 끝에는 신적 증인이 있다. 4절은 하늘 아버지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밝히고, 8절은 그리스도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푸는 열쇠는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는 과거에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며, 현재에도 존재하신다. 예수와 아버지께서 모두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시며, 태초에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실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들'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엘리야김의 어깨에 놓인 그 '열쇠'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의 알파는 1장이요 오메가는 22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장들 속에서 히브리 알파벳 전체를 발견한다. 13장은 미국의 반역과 그 이후 세계의 반역을 나타낸다. 1장은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제시하고, 22장은 1장에서 언급된 봉인 해제와 연결하여 같은 진리를 확인한다. 1장, 13장, 22장은 합하여 '진리'라는 단어를 이루는 히브리어의 세 글자를 나타낸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여덟 가지 화를 선포하신다. 22장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와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은 다윗의 수수께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수수께끼는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으로 어떻게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아들이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2:41-46.

22장의 결론은 언약사의 하나의 이정표를 가리킨다. 예레미야도 이 진리의 흐름을 다룬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들로 들어가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와 성전이다, 여호와와 성전이다, 여호와와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들을 믿지 말라.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온전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공의를 온전히 시행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또 너희에게 해가 되도록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곳,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보라, 너희는 유익이 되지 않는 거짓된 말에 의지하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나도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일어나 말하였어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너희가 의지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을,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내쫓으리니, 곧 내가 너희 모든 형제들,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7:1-16.

예레미야는 고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22장 끝부분의 시비를 걸던 유대인들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언약의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중보했다. 그러나 7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동일한 언약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다. 실로의 예언적 역사는, 그들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선택된 언약 백성을 버리신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증거로, 한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에브라임은 우상에 매여 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호세아 4:17.

언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관계를 끝내시는 지점은 특정한 이정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거부한 사건은 열 번째 시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예다. 예레미야 역시 몇 장 뒤에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도 올리지 말라. 그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는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11장 14절.

제7장에서는 실로아의 상징으로 나타난 일요일 법령 때의 라오디게아인들을 토해내심이, 그분이 가까운 장래에 '하실' 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그렇게 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온 자손, 곧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내쫓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내쫓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고, 내게 중보하지도 말라. 내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7:14-16.

제11장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일요일법을 뒤따르는 환난의 때에 자신들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될 때 라오디게아인들을 엄습할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그들의 언약 거절의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라.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그들을 애굽 땅, 곧 철 풀무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려 함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이에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소서, 주여.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리던 날부터 오늘까지, 부지런히 일어나 거듭 경고하며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각기 그들의 악한 마음의 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음모가 발견되었도다. 그들은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되돌아갔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그들을 따라갔느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가서 그들이 분향하던 신들에게 부르짖으려니와, 그 신들은 환난 때에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 수만큼 있었고, 예루살렘의 거리 수만큼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것에게 제단을 세웠으니, 곧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만든 제단들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고 기도도 올리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는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1-14.

십사만 사천 명에 포함될 후보자들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확인된다; 그들의 최종적인 집결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확인된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외적 계열은 다니엘 11장 11절에서 확인된다; 가라지에 대한 일요일 법령의 심판은 에스겔 11장 11절에서 확인되며, 미련한 처녀들에게 임하는 형벌과 두려움은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확인된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절들에 있는 이정표이며, 23장은 재림주의에 대한 여덟 가지 화를 선포한다. 23장은 1844년 10월 22일 또는 일요일 법령을 가리킨다. 그 두 이정표 모두가 혼인의 성취이며, 혼인은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혼인의 완성은 속죄, 곧 'at-one-ment'를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의 자손은 남자에게서 23개, 여자에게서 23개의 염색체를 받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합쳐진 46개의 염색체가 성전을 이룬다. 각 사람은 성전이니, 너희는 주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혼인의 완성, 곧 둘이 하나가 될 때는 스물셋짜리 성전 둘이 합하여 마흔여섯짜리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요, 그는 자신의 남성 성전과 결합할 여성 성전으로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 연결은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서 인간의 성전이 신성과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 "스물셋"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상징하며, 그 사역은 이천삼백년 예언의 끝에서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23장은 십사만 사천의 모조품인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 대한 선포이다.

14만 4천은 일곱에서 나온 여덟째이며, 그들은 여덟째 날에 부활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있던 여덟 영혼이며, 셋의 후손 여덟 명이고, 그들의 이마에 있는 인은 여덟째 날에 행해지던 할레로 예표되었다. 그들은 여덟째 날에 봉사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들이며, 23장에서 재림주의에 대해 선포된 여덟 가지 화는 거짓된 여덟에 대한 선포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일은 22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이 선행된다. 22장은 창세기 22장과 상응한다. 이는 구약의 첫 책이 신약의 첫 책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예언적 흐름은 모두 열두 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열두 장 가운데 여섯째인 16장에서 시몬 바요나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마태복음 11장부터 22장까지에는 459절이 있다. 가운데 절은 16장 17절이지만, 그 절은 18절과 19절과 분리할 수 없는데, 이들이 하나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드러낸 이는 혈과 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17-19.

11장부터 22장까지의 정중앙에는 기독교의 근본적 언약 선언이 있다. 그 선언에서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데, 영어 알파벳 각 글자가 지닌 숫자 순서를 적용하면(예컨대 'a'는 1, 'z'는 26), 'p'는 16, 'e'는 5, 't'는 20, 또 다른 'e'는 5, 'r'는 18이다. $16 \times 5 \times 20 \times 5 \times 18$ 을 곱하면 144,000이 되고, 언약적 관계의 상징인 베드로의 개명에 대한 언급은 16장 18절에 있으며, 'Peter'의 첫 글자는 숫자 16이고 마지막 글자는 숫자 18이다. 이 모든 것은 11의 상징으로 시작해 22의 상징으로 끝나는 열두 장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 선은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에서도 나타나며, 그 선은 총 305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중심은 창세기 17장 11절이 된다. 구약의 첫째 책에 속한 그 열두 장으로 이루어진 선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드러내며, 신약의 첫째 책의 같은 장들에서 오메가 선과 만나는 알파 선을 대표한다. 마태복음에서 오메가 선의 중심은, 일요일 법에서 들어 올려지는 언약의 표징인 14만 4천의 언약 관계의 절정이다. 창세기 선의 중심 절은 중심 절 자체만을 밝힐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삼중 언약의 두 번째, 곧 가운데 단계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언약의 표징도 밝힌다.

또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창세기 17:11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먼지와 잡동사니, 가짜 보석과 위조 동전을 쓸어내자, 그것들은 모두 구름처럼 치솟아 창밖으로 나갔고, 바람이 그것들을 실어 가 버렸다. 소란 속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 잡동사니는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귀중한 보석들, 다이아몬드, 금화와 은화가 온 방 안에 넘치도록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런 다음 탁자 위에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보석함을 하나 올려놓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동전들을 한 움큼씩 그러모아 보석함에 던져 넣었으며, 어떤 다이아몬드는 핀 끝보다도 크지 않았지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와서 보라'고 요청했다.

"나는 보석함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광경에 눈이 부셨다. 그것들은 이전의 영광보다 열 배나 더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흠뜨리고 먼지 속에 짓밟았던 악한 자들의 발에 의해 모래 속에서 문질러졌다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보석함 안에 아름다운 질서로, 각각 제자리에 정연히 배열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던져 넣은 사람의 눈에 띄는 수고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나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고, 그 외침에 나는 깨어났다." 초기 저술, 83.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먼 미래로 미루고 있다. 나는 늦은 비가 한밤중의 외침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열 배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Spalding and Magan, 5.

왕이 그들에게 물어본 모든 지혜와 총명에 관한 일에서, 그는 그들이 그의 온 나라에 있던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열 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 1:20.